■5·18 27주년 추모·전야제 이모저모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

일본·인도 노래패 참여 평화 기원

○…5·18 민중항쟁 2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는 오후 3시부터 '5월에서 6월의 함성으로'라는 주제로 전야제가 열려 추모 열기를 고조.

공연 난장 1·2부, 진혼마당, 체험마당, 대동한마당 등 5개 마당으로 진행된 전야제에서 일본 노래운동단체인 '우타고에 전국협의회'(회장 고바야시 히까루)와 인도의 집시 노래패 '바울'이 10여 곡을 열창하며 세계평화를 염원.

전야제에 참가한 1만5천여 명의 시민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옛 전남도청 앞 광장 분수대를 도는 '통일 기차놀이'로 피날레를 장식.

주먹밥 나눠 먹으며 '대동 한마당'

○…80년 5월 광주의 '나눔 정신'을 상징하는 '평화와 나눔의 5·18 주먹밥' 행사가 외국과 타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큰 관심.

'노동광주실업센터'(소장 정향자) 소속 실직자 70여 명과 동구 지산동 '해맑은 공부방' 어린이 50여 명은 17일 주먹밥 1만여 개를 만들어 금남로와 지하철 역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광주의 대동정신'을 강조.

한편 '5·18 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행사에 앞서 11공수여단·육군 31사단·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 군 부대 3곳에 '광주시민과의 화해'의 뜻에서 주먹밥 나누기에 동참해줄 것을 공식요청했으나, 군 당국은 "식단표가 미리 짜여져 있고, 훈련 일정 때문에 어렵다"며 불참을 통보.

통일기원 바람개비·조각보 불티

○…전남대 '진보법 학문 일구어가는 사람들'과 조선대 '진보법 연구회' 소속 학생 40여 명이 모여 만든 '통일기원 바람개비' 2천여 개가 17일 전야제에서 시민들의 선풍적인 인기로 1시간30분 만에 바닥.

바람개비 나눠주기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룩된 만큼, 광주의 한에 얽매이기보다 한미 FTA 문제·통일 등 한반도 문제로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

5·18에 대한 생각을 조각보에 적는 행사도 준비한 200여 개의 조각도 2시간 만에 떨어졌는데, 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나눠주는 팸플릿보다 바람개비가 더 잘 팔려 샘이 난다"며 시민들의 호응에 만족한 표정.

강화도 대안학교 학생 전원 참배

○…강화도에 있는 대안학교인 '산마을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60명 전원이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역사의 섬 강화 5월 광주를 만나다'는 주제로 16~19일 담양 한빛고등학교에서 '5·18 캠프'를 갖고 있는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학교에서 출발, 12㎞를 걸어 두 시간 만에 묘지에 도착.

산마을 고등학교는 7년째 '5·18 캠프'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3·1절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5·18이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임을 깨닫게 됐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

구청 자원봉사 회원 수지침 등 인기

○…광주시내 각 구청의 자원봉사센터 회원 수백여 명이 17~19일 금남로에서 '5월 자원봉사단-5월 시민군의 이름'으로 봉사 활동을 시작.

남구의 발마사지 팀과 광산구 수지침 팀이 17일 마련한 '수지침과 발마사지' 부스에는 침과 마사지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인기.

18일에는 동구·서구 봉사센터, 19일에는 북구 자원봉사센터가 급수·환경정화 봉사에 나설 예정.

/오광록기자 kroh@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5·18 민중항쟁 27주년 추모제가 17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정수만 유족회장·김후식 부상자회장 등 5월 단체 관계자·시민·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채정 국회의장·박광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도지사·이홍길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추모사를 했다. 추모제에 이어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천도재(薦度齋)가 열린 5·18 민주묘지에는 이날 하루 1만5천여 명의 참배객이 찾아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달걀 부화 통해 5·18 가르치는 나주 빛고을 학교

"민주화 헌신 5월 영령도 이렇게 다시 깨어났으면"

나주 빛고을 대안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채 부화기에 든 달걀을 지켜보고 있다. /나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 빛고을 대안학교(교장 양인목)는 5·18 민중항쟁의 참뜻을 일깨워주기 위해 '달걀 부화 행사'를 치르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말 150명의 학생 1인당 2개씩 모두 300개의 달걀을 구입,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한 뒤 과학관에 있는 부화기에 집어넣었다. 부화기에 든 달걀은 아이들의 사랑이 담뿍 담긴 시선과 정성어린 보살핌 아래 17일부터 하나하나 병아리로 부화되고 있다. 부화된 병아리는 이후 과학실에서 한 달여간 아이들의 정성으로 커 나가게 되고, 닭이 되면 각 반별 양계장에 보내진다.

학교 측은 병아리가 부화되는 기간 중 학생들 수준에 맞게 제작된 5·18 비디오를 상영하고, 5·18을 소재로 한 상황극 체험 수업을 통해 광주의 정신을 알려주고 있다.

오지영(여·10·4년)양은 "내 이름이 적힌 달걀에서 병아리가 삐약거리며 태어나니까 너무 신기했다"라며 "5월에 돌아가신 분들도 이렇게 다시 깨어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 교장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처럼 민주주의가 이룩돼 가는 과정 또한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이를 통해 5월 영령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5·18묘지에 '어린이 체험관'

광주시, 8억여원 들여 연내 설치

'5월 부상자' 시내버스 무료

광주시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 '5·18 어린이 체험학습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어린이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해 5월 정신계승과 민주주의 교육이 애로가 많다는 지적〈본보 5월15일자 7면〉에 따라 취한 조치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8억5천만원을 들여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관 지하 1층에 어린이 체험학습관(연면적 490㎡)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체험관은 전시실과 영상실을 갖추고 전시모형 등도 배치돼 어린이들이 5·18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또 구 묘역 성역화와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 구 묘역과 국립묘지 사이 연결로를 정비해 조경 및 쉼터 설치, 야외전시 판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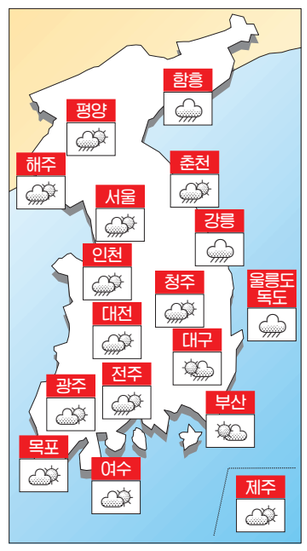
한편 시는 18일부터 5·18 민주유공자 중 부상자(1천300명)들에게도 광주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흐린 하늘

흐린 후 밤에 개겠다.

5월 18일 (음 4월 2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린 후 갬	13~20℃
목 포	흐린 후 갬	15~19℃
여 수	흐린 후 갬	14~21℃
완 도	흐린 후 갬	14~19℃
구 례	흐린 후 갬	12~21℃
해 남	흐린 후 갬	12~20℃
장 흥	흐린 후 갬	12~20℃
고 흥	흐린 후 갬	13~22℃
순 천	흐린 후 갬	12~21℃
영 광	흐린 후 갬	14~20℃
진 도	흐린 후 갬	13~20℃
전 주	비온 후 갬	13~20℃
남 원	비온 후 갬	12~21℃
정 읍	비온 후 갬	13~1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3.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3.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3.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 03:05 15:06 썰물 08:22 20:23
여 수 밀물 09:51 22:31 썰물 03:52 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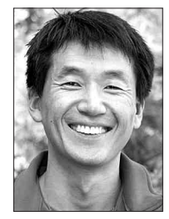
▲해뜸 05:27 ▲해짐 19:31 ▲달뜸 06:05 ▲달짐 21: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날 씨						
최저/최고	11/22	12/25	13/26	13/27	14/26	15/25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산화한 故 이현조 씨

휴머니즘 갖춘 '영원한 산악인'



지난 16일 세계 3대 거벽인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신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도전하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산화한 이현조(35·전남대산악회 OB·골드윈코리아)씨는 광주·전남 산악계의 촉망받는 기대주이자 거벽 등반의 신성(新星)이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7월14일 낭가파르밧 루팔대장벽(8,125m)을 중앙 직등루트로 등정, 세계 산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길이 4천500m의 지구상 최장, 최고 난이도의 거벽인 루팔벽은 지난 1970년 라인홀트 메스너가 오른 이후 35년 동안 아무도 넘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귀국 직후인 그 해 8월에는 광주일보에 두 차례에 걸쳐 등정기를 연재하기도 했다. 어려운 루트를 직접 개척하는 '등로(登路)주의'의 새 장을 연 이 등반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한민국 산악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마칼루(8,463m)를 시작으로 지난해 전남대 초모랑마원정대를 이끌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는 등 8천m급 5개 봉을 등정했다. 이번 남서벽 원정을 이끈 박영석(44·골드윈코리아) 대장과는 북극점·남극점 원정을 함께했다.

이성원 루팔벽 원정대장은 "체력과 기술, 휴머니즘까지 겸비한 최고의 클라이머였는데…"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샤팡마 남벽 등정 때는 하산 길에 크레바스에 추락해 극적으로 탈출한 뒤 해발 7천850m에서 비박을 하고도 체력이 떨어진 선배를 구하기 위해 다시 100m를 거슬러 올라간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이씨는 영광 묘량 출신으로 광주서강고를 졸업하고 전남대 불문과 입학 후 산악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산악활동을 시작했다.

이씨의 시신은 늦어도 21일 국내로 운구될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18일부터 광주 무등경기장 내 광주시산악연맹(062-374-8848) 등에 마련되며 장례는 대한산악연맹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선두기업
태양광발전사업 토탈 컨설팅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및 허가대행
-책임시공사 선정
-자금컨설팅
-태양광발전 사업비 펀드조성 컨설팅
-태양광 발전 시공 전문기업
※태양광발전 부지 매입 및 임대상담 환영
■협력사 : ㈜대림쏠라, ㈜썬앤킴, 앤알솔루션㈜

사 원 모 집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자격증소지자
-금융권근무경력자
전기기사
-전기기사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전형방법
-e-mail : hbdsola@naver.com
서류심사후 개별통지
한반도 솔라텍(주) www.hbdsola.com T.062)524-0321,8550, 8558 F.062-525-5689
●화순 북면 3MW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1차 1MW 5월 착공●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5月1日 첫진도 시작반(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새로운 다이어트 컨설턴트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www.jir.wo.to
전립선염·조루증·방광염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리산한약방 T.(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깔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깔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